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9년 6월 9일(주일) 제1249호

순백의 마리아들이 부르짖는다!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12~14일 서빙고 본당 내일까지 직장 여성 위한 마리아행전 참가자 모집

드디어 이번 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거룩한 목마름'을 주제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순백의 마리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 청년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는다.

2019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교회 주차장은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오전 8시 출발)와 이촌역 4번 출구(오전 8시 10분)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오전 10시 20분까지 운행한다. 순예배를 직장 여성을 위한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12일 이재훈 담임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13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14일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을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주제별 강의가 이어진다. 12일 김양옥 목사(등대교회), 13일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가 강의한다. 집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직장 여성을 위한 마리아행전은 12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김윤희 교수(FWIA 대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을 주제로 강의한다.

올해 마리아행전 참가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참가신청이 줄을 이었다. 6월 5일(금) 기준 사전등록 인원이 3,900명(일반 3,250명, 저녁 650명)을 넘어설 정도였다. 아직도 마리아행전에 참가신청을 못한 여성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내일(10일)까지 직장 여성을 위한 마리아행전(저녁집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77, 3201

홈페이지: www.onnuri.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월 비전헌금 '군선교 후원'

오늘(9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군선교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지난해 전도집회를 18회나 개최해서 장병 5,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진중세례식은 11회 열었다. 장병 1,800명이 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올해도 군선교팀은 전도집회, 진중세례식,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61만 군장병의 60% 복음화'를 목표로 세우고 사역하고 있다.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아웃리치 발대식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2019 아웃리치 발대식'이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올 여름 국내외로 복음 들고 떠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아웃리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훈 담임목사와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가 아웃리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아웃리치 발대식에는 국내외 아웃리치 팀장과 공동체 리더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안전한 아웃리치를 위해 안전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안전방침은 아웃리치 발대식에서 브로슈어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관리시스템(2000.swim.org)에 국내외 아웃리치 계획서를 입력하지 않는 공동체나 사역팀은 빠른 시일 내에 아웃리치 계획서를 입력해야 한다. 아웃리치 계획서는 성도들의 안전관리, 차후 아웃리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활용된다. 문의: 02-3215-367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당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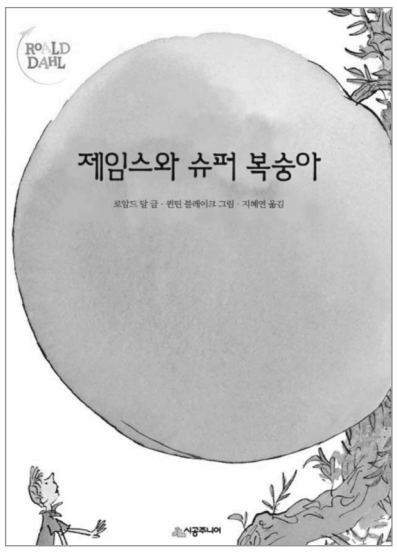
일시: 6월 15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협동 명예 장로

기획_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시리즈 4-5면 특집_ 키워드로 보는 퀴어축제와 동성애 6면 특별기고_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IX) 8-9면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2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의 정의와 작은 믿음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로알드 달 글, 퀸틴 블레이크 그림
| 시공주니어 | 10,000원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다. 나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독서를 사랑하셨고,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심어주셨다. 그 선생님께 '로알드 달'이라는 저자를 소개 받았는데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느낌이었다. 그때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상상력을 유도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책 밖에 없었다. 로알드 달의 책을 읽는 순간 몰입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나만의 판타지 세상을 통해서 어느 순간 책에 대한 큰 애정이 생겨 버렸다. 책에 한번 빠지면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고 저자가 만든 세상에 빠지게 되었다. 로알드 달이 쓴 모든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찾게 되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부터 〈마틸다〉, 〈마이 리틀 자이언트〉 등을 읽게 되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동화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이다.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제임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거대한 코뿔소가 부모님을 잡아먹는 사건으로 인해 고아가 되어버렸고 신데렐라의 계모만큼이나 지독한 두 숙모인 스폰지와 스파이커에 의해 키워지게 된다.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제임스에게 노인이 마법의 선물(악어의 혀)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네주었는데 그만 그 봉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봉지 안에 있던 내용물이 모두 땅으로 스며들고 말았다. 땅으로 스며들어간 마법의 힘은 나무에 열려있던 하나의 복숭아를 집채만 한 크기로 만들었다. 두 숙모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돈벌이를 했다. 제임스에게는 관람시간 이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휴지를 줍게 했다. 계속되는 허기를 참지 못한 제임스는 슈퍼 복숭아를 한입 배어먹고는 뚫어진 구멍을 통해 복숭아 내부로 들어간다. 거기서 만나게 된 6명의 벌레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는 대장정을 거쳐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애플시티 뉴욕에 도착한다.

이 책에서 내가 발견한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다. 저번 주 QT 말씀처럼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시며 그들을 매우 사랑하신다.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렘 7:5~7).

만약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차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아인 제임스를 억압하고, 노예 취급했던 숙모들은 슈퍼 복숭아에 깔려 죽었다. 제임스는 슈퍼 복숭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결국 뉴욕 시티를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까지 가게 된다. 여기서 발견한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작은 씨앗이 연단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장하고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린 내가 꿈을 꾸게 만들었고, 도전정신을 심어주었으며,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드는 희망적이고 인상 깊었던 동화였다. 내 아들 둘이 조금 더 크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다.

백인규 목사
(Point5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보고만 계시나요?"

답: "우리 앞에 놓인 악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연일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온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 테러, 살인, 성폭력, 패륜적 범죄, 학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종교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부정부패와 반윤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과 마주하고 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벌어진 비극과 같은 인재, 불의의 사고, 질병, 기근과 같은 이유를 설명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격체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로봇의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있는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사랑해요 주인님", "명령만 하시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것이다. 악과 고통이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면 완전무결한 세상이 구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인격적이고 만족스러울까? 로봇의 사랑고백으로 이 땅은 공허한 찬사와 정해진 소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되었다면 그 사랑은 값싼 것이 되고 만다. 하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악과 고통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 즉 인간이 첫 번째로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악과 고통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유의지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것이 악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유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악을 몸소 겪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짧은 생애 동안 배고픔과 고통, 매 맞음, 불의한 재판에 의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고통과 악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악과 고통의 상황을 뛰어넘는 최후승리를 미리 선포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모든 악과 고통을 겪은 후에 주님을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 이르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환상에서 보았던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악과 고통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선한 싸움을 할 것이며,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악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정현석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요나의 기도

요나 4:1~11

"요나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하나님 은혜를 저항하는 자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여행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행하고, 그것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고작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죽음에 처해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몹시 기분이 상했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그 소식을 전한 요나는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요나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와 불평

요나서에는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때 요나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냥 죽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구했는데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사역에 쓰임을 받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니느웨에 큰 회개와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곧 자기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 불평은 니느웨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4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 '영적 유아기로의 회귀(Spiritual Infantile Regression)'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고 동행한 사람도 어느 순간 영적 유아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 이전에 여러 예언들을 하나님께 받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랬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민족의 원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만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2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잘못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은혜는 의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보상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 방에 가서 쉬어라"는 정도만 해도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과도해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에서 모차르트가 방종을 일삼는 탕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살리에리라는 음악가가 모차르트의 방종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자신은 음악적 재능을 연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모차르트는 방탕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저렇게 방탕한 사람에게 왜 그런 재능을 주십니까?"

이것 또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의 태도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은 이가 자신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는 잘못되었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은혜만 적용하고 진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만 적용하고 은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3절).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말한 종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광야로 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요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요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이 뒤쫓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를 뒤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상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교만한 자존심과 편협한 민족주의까지 합해져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노를 하고 있는 요나를 품어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훈이란 사랑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자신의 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만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냐 입니다. 〈13면에 계속〉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4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시리즈 1. 크리스천의 품위 2. 노동의 품위(땀의 가치) 3. 노인의 품격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동은 귀하다

누군가의 땀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직업의 귀천 따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위'

"특별한 기술도 지식도 필요 없는데 시의원보다 월급이 많다."
얼마 전 한 시의원이 자신의 월급보다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더 많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짱깨, 철가방, 때밀이, 잡상인, 딴따라 등 특정 직업과 직업인을 비하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몹시 곤란하다. 미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요, 꼭 갖춰야 할 진정한 품위다. 누군가의 땀의 가치를 그 어떤 이유로도 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마저도 직업과 사회적 수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기, 자칭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보고 자칭 나쁜 부모가 말했다.

"너 공부 안하면 저런 사람 되는 거야."

옆에 있던 자칭 좋은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도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해."

누가 나쁜 부모이고, 누가 좋은 부모일까? 둘 다 잘못됐다. 자칭 나쁜 부모와 좋은 부모 모두 환경미화원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까? 모르긴 몰라도 부모 힘 빠지면 무시하고 괄시하는 정도는 거뜬히 하지 않을까? 보고 배운 게 그래서 무섭다.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는 직업? 아무나 될 수 없는 귀한 직업!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재벌, 군 복무 잘하고 오라고 보낸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하인 부리듯 한 직속상관 부부, 하청기업이나 직급 상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상관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일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명분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커서 저렇게 살고 싶니?", "공부 열심히 안하면 저런 사람 된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해댄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세상에서 거저 갖는 직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북 구미시에서 환경관리원 여섯 명을 모집하는데 185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30.8:1이나 됐다. 2017년 21.7:1, 2018년 17.2:1을 훌쩍 넘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지원자들의 학력이다. 대졸 이상이 52%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타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울산 동구 환경미화원을 세 명 채용하는데 11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무려 37.6대 1이었다. 2017년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가량 높았다. 지원자의 학력도 전문대졸 이상이 58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두 명이나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비하하는 직업이 아니라 아무나 될 수 없는 귀한 직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환경미화원, 이삿짐센터 일꾼, 정화조 청소하는 일, 고층빌딩 유리 닦는 일 등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 일이 볼품없다거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코 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워서 안하는 일을 대신 맡아 해주는 감사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선택한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그들도 육체노동자였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도 소위 말하는 육체노동자였다. 엘리야에 이어 놀라운 이적을 행한 선지자 엘리사는 농부였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왕상 19:19).

아모스 선지자도 목자이자 농부였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암 7:14).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행 22:25~28)이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인 순수 히브리인이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에 정통한 자라고 강조했다(롬 11:1, 고후 11:22, 갈 1:14, 빌 3:5~6). 바울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 학파의 율법교사(행 22:3)이자 로마 시민이며, 가말리엘 문하에서 유대교를 공부한 신분과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허용 가능한 직업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천한 직업이었다. "죽은 동물 가죽 만지는 것은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열심인 자들에게 바울의 직업은 혐오와 천대의 대상이었다.

로마 시민이자 지식인인 바울이 노동을 경멸하는 로마 문화에서 스스로 육체노동자가 되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비천하고 혐오스런 직업을 생업으로 택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다. 바울을 두고 누가 비천한 육체노동자라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또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목수셨다. 육체노동자였다.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역할(소명)'이 다를 뿐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신의 구두를 직접 닦았다고 한다. 비서관이 만류하자 링컨은 "자신의 구두를 닦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네.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회에서조차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의 학벌과 직업, 수입의 많고 적음으로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홍범식 장로(두란노해외선교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5

회)가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들려줬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택시기사였던 내가 교회에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요. 나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분들 사이에서 자격지심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의 귀천에 있지 않아요.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열심과 성심으로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흘리는 땀의 가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직업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이 천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품격이 묻어 나온다. 물질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전 5:18).

"무엇이든지 네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전 9:10).

전문가 기고

일과 땀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

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던 말 중에 '불한당(不汗黨)'이 있었다. 불량배들이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때 나는 한자를 잘 몰라서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었다. 이 말인즉,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동시에 정상적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일과 땀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은 곧 일하는 사람이다.

땀 흘리면 부를 이룰 수 있지만,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이루지 못한다

땀을 흘리는 일은 1차적으로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사회에서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 잠언에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잠 28:19)는 말씀이 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부(富)를 이룰 수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부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육체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디지털화로 인해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직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 외에 정신적인 노동을 하거나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물리적인 땀은 흘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땀은 흘리지 않지만 그 이상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땀 흘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고가 필요한 모든 일들은 땀을 흘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창 1:28)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즐겁고, 신나고, 의미 있게 해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일할 때는 정말 행복했다. 그는 일하면서 육체적인 땀을 흘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흘린 땀은 고통과 수고의 땀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의 땀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창 3:17).

>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시적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흘리는 땀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저주로부터 회복을 시작했지만(골 1:20), 여전히 사람들은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땀 흘리는 수고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골 3:23).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벧전 2:21).

육체노동을 비롯해서 고통이 따르는 일들을 주께 하듯 해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적성이 맞지 않거나 그것을 감당하기에 신체적인 한계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노동은 좋은 경험이 되고, 영적으로도 좋은 훈련과정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율법수업을 하지 않고 '목수'라는 노동을 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열정과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소명이 있다

나는 7년 전부터 프랑스에 있는 '미션디모데'라는 공동체 교회와 교류하고 있다. 그곳을 방문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다음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 훈련을 3년에 걸쳐서 한다는 점이었다.

이 훈련과정에는 성경과 신학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남자들은 건축이나 건물 보수, 목공 일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 정비를 한다. 여자들은 건물 관리나 부엌 일, 빨래나 재봉과 관련된 일을 한다. 훈련을 마친 후에도 그 영역의 일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자가 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는 목회자이거나 설교자이거나 혹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가정주부로 살게 되었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육체노동은 필수적인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신학공부를 할 때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다양한 노동을 했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했던 일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중한 경험이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훈련을 하든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든지 땀 흘리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이는 육체노동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프레데릭 뷰크너는 "자신에게 있는 열정과 이웃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소명이 있다"고 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다. 직업이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소명을 찾지 못한다. 땀 흘리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는데 많지 않다. 그래서 땀 흘리는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신 것이나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개인의 열정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 아니었을까? 개인의 열정과 필요가 만나는 곳에 더 많은 소명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거에 경제적인 책임 때문에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일이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시적 소명'이었다. 그때의 육체노동 경험은 내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실업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육체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땀을 흘리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시적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실업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6

키워드로 보는 '퀴어문화축제'와 '동성애'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품어야 한다

지난 2일, 서울광장에서 제20회 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가 열렸다. 무려 7만여 명이 참석했다. 제1회 퀴어축제에 50여 명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지난 20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식 또한 대폭 달라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분명 퀴어축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퀴어축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퀴어축제의 역사,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 어느 탈동성애자의 고백을 키워드로 묶어봤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의견을 견지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년

퀴어축제의 역사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가 모여 2000년 9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 첫 번째 퀴어축제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번째 퀴어축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저 일부 성소수자들의 모임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회운동단체, 일부 진보정당 등이 가세하면서 그 세를 조금씩 키워나갔다.

2013년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제14회 퀴어축제에는 지역상인회가 처음으로 후원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부터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각국의 대사관에서도 부스를 차리고 퀴어축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17년 제18회 퀴어축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가했다. 올해 제20회 퀴어축제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단체도 참가했다. 우리나라 퀴어축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7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34%가 찬성했고, 58%가 반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01년 조사에서 찬성 17%, 반대 67%였던 것과 비교하면 16년 동안 찬성 의견이 17%나 증가했고, 반대 의견은 9% 감소했다.

평등한 대우 VS 창조질서

동성애 찬성과 반대 진영의 주장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게 퀴어축제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영의 대표적인 주장은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기름을 붓는 법안이 바로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동성혼 합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혼 합법화 등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종교단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평등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그 어떤 행위를 두고 평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다.

혐오

갈등 그리고 악영향

퀴어축제가 활성화되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동성애를 혐오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악의적인 아웃팅(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행위)을 하기도 한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친 갈등조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크게 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동성애는 반대하되 동성애자들은 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보다 동성애자들을 품고,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퀴어신학

동성애가 신학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퀴어신학에서는 성경이 동성애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퀴어신학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 차원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기독교학술원)가 본지에 연재한 '퀴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시리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퀴어신학자들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구약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구절이 없다."

동성애는 죄

전통적인 기독교의 의견

성경에서는 분명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롬 1:26).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딤전 1:10).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팟캐스트에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동성 성관계에 빠진 두 남성이나 여성에게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다."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어긋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동성애는 분명하게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탈동성애

어느 탈동성애자의 고백

탈동성애 기관이나 단체마다 그 정의가 다르지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동성성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부 동성애 진영에서는 탈동성애를 선택한 사람들을 두고 애초에 동성애자가 아니었거나 양성애자였다고 비난하는데 옳지 못한 주장이다. 동성애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동성애 청년사역자 안다현 성도는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 그리고 십여 년 넘게 동성 성관계를 즐겼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지만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급기야 2017년 에이즈 판정까지 받았다. 그는 반동성애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지연 약사를 만나고 회심했다. 지금은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상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야기 나누고, 격려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기 전에 올바른 성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을 만날 때 태도도 중요하다고 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성향이 강하고, 종교인들은 차별과 혐오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7

크리스천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그리고 천국도시를 향하여!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6월 13일 개봉

죄로 가득한 도시에 살던 시민 '크리스천'이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천국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전이자 세기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천로역정〉의 핵심 줄거리다.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신앙지침서 〈천로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6월 13일 개봉한다. 전국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 CBS 프로그램 '어른 성경학교'에 출연 중인 작곡가 주영훈, 개그맨 김효진, 가수 성대현, 개그맨 정범균, 박태남 목사, 서연미 아나운서가 더빙했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북미 개봉 첫날(4월 18일) '샤잠', '캡틴 마블', '헬보이' 등 쟁쟁한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제치고 스크린당 티켓 판매 수익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이나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상상력 자극하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

천로역정이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장대한 스토리와 다양한 캐릭터 덕분이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를 만나게 된다. '율법 언덕', '세속의 숲', '절망의 성', '허영시장', '마법의 들판',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강'을 지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 여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데,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에서는 뮤지컬이나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주인공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이자 은혜다. 크리스천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권유하며 격려하는 전도사, 크리스천처럼 천국도시를 향해 걸어가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 돌아간 약함, 가지 말아야 할 길로 크리스천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잘난과 아볼루온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를 가로막기도 한다.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면서 과연 나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인물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의 가장 큰 매력은 세대를 관통하는 콘텐츠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봐도 무리가 없다. 다음세대에게는 삶과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기성세대에게는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수익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26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마련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제작진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도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면서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관람을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

좋은 부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유한익 저 | 두란노 | 16,000원

가르치려는 부모와 배울게 없다는 자녀의 갈등은 수많은 가정에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크리스천 가정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이처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의 저자 유한익 전문의는 "양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치관'이다. 건강한 가치관 없는 자녀 양육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 높인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무엇이 좋은지'를 강조하기보다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있고 의미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좋은 부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로서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의 삶은 강력한 DNA로 자녀들에게 남는다. 아이를 키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양육 방식 패턴들이 부모로부터 온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에는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지식보다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저자의 말처럼 부모와 자녀가 같이 보고, 공감하고, 함께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힘든 일들을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다.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싶은 이 시대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길 위에서 쓴 전도행전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박승목, 박영자 저 | 두란노 | 15,000원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는 영혼 구원을 위해 17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76세 노부부의 눈물 나는 이야기다.

박승목, 박영자 부부는 17년째 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회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미국 횡단을 33번이나 했고, 49개주 750여 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열고 영혼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

박승목, 박영자 부부는 198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꿨지만 생활은 궁핍하기만 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했나. 고생만 실컷 하던 박승목 목사가 간암선고를 받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이들 부부는 남은 생애를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쌀 몇 포대와 장아찌를 차에 싣고 무작정 기도원을 찾았다. 그 기도원에 머물면서 지역주민들을 전도했다. 그때부터 오직 예수만 전하는 길을 걸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지역 방송과 미주 한인크리스천들에게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도록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허리케인이 불어도 부부의 안전만큼은 지켜주셨다.

길 위에서 쓴 전도행전은 끝없는 감동과 은혜를 선물한다. 전도행전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승목, 박영자 부부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복음을 싣고 달릴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겠다고 한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 이들 부부의 전도 방법이 궁금한 성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8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IX)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과제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한국 교회는 130여 년 동안 양적 성장과 사회적 기반 확충 가운데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변질되어 분열된 모습을 극복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이 전파 된지 불과 30여년 만에 초기 기독교가 3.1운동에서처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민족독립운동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기피하지 않았다. 민족독립을 신앙적 과제로 연결시켰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민족 앞에서 고민하며 신앙과 민족의식을 일치시켜 국가독립의 대의에 참여한 선배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당시 일제 강점기에 만세운동을 이끌면서 초교파적인 단합을 통한 민족헌신의 모습을 보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개인 구원보다는 자발적 희생, 공공의 신앙, 개교회주의보다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복음 신앙을 실천하였다.

이승훈 장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신앙인이었다. 1910년 이승훈은 12월 일경에 체포되어 2년 동안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다가 1912년에야 오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산으로 돌아온 이승훈은 정기정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오산학교와 오산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러나 또다시 105인 사건으로 형무소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 1915년 2월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 그가 52세 되던 해였다. 그는 오산학교로 달려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학생들을 만나보고 그 길로 평양신학교로 달려갔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신앙과 신학의 훈련을 받았다. 이승훈은 1916년 오산으로 돌아와서 장로로 장립 받아 오산학교와 오산교회를 생명을 바쳐 받들어 섬겼는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4년 동안 그의 신앙은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한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3년 동안 평양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감옥 안에서 더욱 두터워지고 굳건해졌다.

신앙적, 사상적 지조를 지키는 일

3.1운동 후 지도자들의 변절에 대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지만 쉽사리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승훈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조를 지켰다. 그도 물산장려운동을 했는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그걸 개량주의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이승훈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견해다. 이승훈은 3.1운동 33인 중에서 공적으로 가장 나중에 출옥한다. 제일 악질로 보였던 것이다. 33인 가운데도 변절자들(박희도, 최린, 정춘수)도 있었다.

박희도는 33인 중 최연소 인사였다. 3.1 운동 후 잡지 〈생활사〉를 창간하였다. 이후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당시 신문 가십란의 단골 스타가 되었다. 결국 친일 성향의 월간잡지 〈동(양지)광〉의 창립인, 주간으로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1948년 반민특위에 회부되었다가 1951년 별세했다.

최린은 천도교도로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1934년 중추원 참의, 37년 총독부 조선어판 기관지 매일신보 사장, 39년 임전 보국단장을 역임하는 등 친일에 앞장섰다.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을 때 다른 이들과 달리 눈물로 참회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때 옆에서 "민족을 위해 친일하였다"고 진술하는 이광수에게 닥치라고 했고 6.25 때 납북되었다.

정춘수는 3.1 운동 당시 감리회 목사로 함경남도 원산에서 만세 운동을 지도했다. 1934년 흥업 구락부 사건으로 고문당했다.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 행위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간주되나 박희도 및 최린에 비하면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하지는 않았다. 자발적으로 한 이들과 다르게 못 버텨서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독립 유공자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에 사망했다.

이들에게 변절자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승훈 선생은 탓하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남강의 제자였던 한경직은 다음같이 스승에 대해 회고하였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장하니깐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한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다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 이승훈은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는다' "

주기철 목사는 개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민족적 신앙을 고백하고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주의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3.1운동 전 기독교는 독자적 독립운동을 계획했으나, 후에 천도교와 손을 잡고 거사를 추진했다. 바로 협동과 화합의 정신이다. 한국교회는 천도교, 불교와 협력하여 애국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선언문의 대표 33인을 보면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에서 민족대표로 참여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유교와 천주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종교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불참했으나 신도들은 민족적인 거사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동참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유산이다. 각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 간에 배타적이거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종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 외에 다른 모든 경건의 실천은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사회성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주, 평화, 통일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3.1정신으로 특별히 종교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민족의 평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운동, 나아가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스 큉이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에서 제안한 것처럼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평화가 필요하고, 종교 간의 평화는 종교 간의 대화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학적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념을 넘어선 복음 통일

3.1운동은 이념 운동이 아니었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종교가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민족 존재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 없이는 신앙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 당시 과제는 독립이었지만 오늘의 과제는 통일이다. 통일을 이루어야 완전한 광복이요, 3.1운동도 결실을 맺는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 애국운동에 대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는 사회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애국운동도 이념으로 갈라져 있다. 진보는 친북 쪽으로, 보수는 친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모든 운동이 이념화되어 있다. 북한의 세습과 독재가 용인될 수 없다. 거기에는 진정한 민족도 없고 비판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없고 수령이라는 인위적인 백두가문만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자유를 지켜주지만 맹목적으로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대주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이념을 강조한다면 복음에 입각한 접근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가치(하나님의 말씀)를 인정하는, 자유민주 및 시장 경제체제의 통일이어야 한다. 친북도, 친미도 아닌 친국민이어야 한다. 하나님 뜻에 맞는 복음적 통일이다. 국민들을 잘 살게, 바로 살게 하는 것이 이념이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조선말과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회복해야 한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감내하였다. 신행일치하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성과 성결함으로 윤리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되, 입으로가 아닌 삶으로 증거해야 할 때다.

2차 대전시 천주교의 교황은 나치체제의 히틀러와도 손을 잡았었다. 교황은 나치체제도 '하나님이 주신 체제이니 복종하라' 고 했다. 그래서 히틀러 치하 천주교는 저항하지 않았다. 교황청 천주교는 3.1운동 때도 일제 체제가 '승복해야 할 체제이므로 나서지 마라' 고 했다. 그래서 천주교 어느 평신도도 민족대표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은 대한민국의 군대장군의 신분으로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암살했다. 그는 양심이 명하는 일을 했고 그의 거사(擧事)는 살인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용기와 명예의 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인 어느 신부는 안중근을 천주교에서 파문시켜 버렸다. 이는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교조주의적 사고요, 태도다. 당시 한국 천주교는 교황의 정책에 따라 일본 식민지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만 누리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일부 천주교 교인들은 그건 교황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공적 승복과 개인적 승복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 구원에 집중하고, 특히 기복주의 설교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개인주의와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 치유와 위로 설교에 치중한 나머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개혁을 위한 사명과 용기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사회적 헌신의 중요성이 제시되어야하고, 오늘날 기독교 신자는 사회적 성결을 위한 거룩한 고통의 삶을 회복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화합하는 포용력

남북 간 문제, 세계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중심으로 하면 갈라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안 갈라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지체일 뿐인데 자기가 몸인 양 자기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면 정통이 아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다 몸에 붙어있다. 자기가 몸이요, 중심이라는 사고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몸의 지체에 붙었을 뿐 몸에 봉사한다는 사고는 지체의 리더십이다. 오늘날 몸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같지 않지만 화(和), 평화, 조화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남강 이승훈도 이웃과 다르지만 화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9

(합)할 줄 알았다. 그것이 민주적 지도력이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의 화의 지도력이다. 평화의 지도력이다. 그는 정통 개혁신앙을 가졌으나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천도교도와 불교도와 함께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반동성애, 낙태, 인권, 반전체주의, 반세습독재 등 윤리와 생명과 사회적 성결과 자유를 위하여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사회적 성결과 자유운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3.1운동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적 양심이 결합되어 나타난 사건이다. 기독교 신앙은 정의, 자유, 평화에 기초하고 있고 민족적 양심은 자주, 평등, 해방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신앙'은 결코 닫힌 민족주의로 머물지 않고 민족적 개성과 인류를 향한 보편적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열린 민족주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민족적 개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 세계와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족적 개성을 매몰시켜선 안 된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면, 민족적 개성과 문화로 세계에 진출하고,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의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케이팝(K-Pop, Korean Popular Music)을 통해 동남아와 세계로 전해지는 문화적 흐름인 한류(韓流)도 이러한 한국적 개성과 인류 보편성의 조화 속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1운동의 평화정신은 한국이 독립해야 일본과 동양의 평화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내 나라의 독립이 곧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독립선언의 정신인 것이다. 이 정신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류애로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먼저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품어 그들을 보편인간성으로 품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이곳에서 고향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도 한때는 식민지였던 약소민족의 상처와 비운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적인 역사적인 공감대가 있다. 이러한 식민지 독립운동을 저들과의 교감과 연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저들이 한국에서 체류할 동안 저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를 향유토록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3.1정신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다.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 지금은 한국·미국·일본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각 관계 결속을 다져야 할 때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방 3각 관계를 다지며 대북제재에 맞서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적전(敵前)분열이자 안보 경제 민간 교류 면에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미·일 3각 관계 붕괴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공격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북핵 폐기와 자유민주 수호라는 공동의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결이 아닌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기야말로 일본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이다.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9년 2월 6일 일본의 지식인 226명이 3.1 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화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를 비롯한 일본 지식인들은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는 3.1독립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한국인들은) 일본에 병합돼 10년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지금은) 조선 민족의 위대한 설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일·한, 일·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지식인들도 이에 상응하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본과 지식인들 사이에 교회 간에 대화를 나누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인들을 모두 군국주의자라고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는 양심 지식인들과 2차 대전 말기에 동경대 지하실에서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기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마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광복절 70주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와 순국선열추모비에 헌화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도 있었다. 존경할만하고 용기 있는 일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력한 바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 혹은 퇴위한 일왕이(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 범죄의 주범 아들이므로 그분이 한번 (위안부)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독일 나치의 폴란트 침공과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폴란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어 폴란드와 독일이 화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5년 "나치 만행은 독일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유대인에 대한 사죄를 반복하면서 선진국의 품격을 나타내었다. 독일은 1952년부터 700억 달러 넘게 피해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면서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회피하는 일본 아베 정권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19년 2월14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국회 참의원회관에서 일본인 변호사들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높이 평가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다."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아베 총리의 말이 오히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발언의 주인공들은 일본인 변호사들, 가와카미 시로(강제징용 배상 판결 설명회 간사), 야마모토 세이타(영화 〈허스토리〉에 나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 '관부재판'에 참여), 아다치 슈이치(히로시마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원폭피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 자이마 히데카즈(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참여), 재일동포 장개만 변호사 등이다. 이러한 일본의 양심세력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간의 다리를 잇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한·일 간에 대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3.1독립정신의 계승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구한말 자주독립의 의지를 모아 세운 기념물이다. 독립문은 반일(反日)이 아니라 반중(反中)의 산물이다.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서재필이 이끈 독립협회였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10여 년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서재필은 1895년 12월 귀국하여 다음해 4월 독립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첫 사업이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세워진 영은문(迎恩門) 철거와 독립문 건립이었다. 여태까지 우리는 자주독립국이었던 조선이 일본의 부당한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조선은 온전한 독립국이 아니었다.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듬해 중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는데 제1조가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였다. 일본은 두 차례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한 이유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屬國)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확인받고, 자신들이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인 자객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1895년 10월)과 고종이 일본의 핍박을 피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1896년 2월) 직후에 영은문은 철거되었다. 독립문이 완공되기 한 달 전 고종은 환구단(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위치)에 올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바꾸고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광무(光武)개혁을 단행하였다. 왕에서 황제로, 전하에서 폐하로의 명칭 변경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중화질서 속 동이(東夷)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주의지의 표출이었다. 1897년의 광무개혁과 독립문 건립은 대중(對中) 독립선언이었다. 그러나 대중 독립을 통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의 한일병탄으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냉엄한 국제정치 용어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처지가 바뀌었다.

3.1운동은 신앙과 민족적 양심이 결합된 사건이었다. 3.1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갈망하던 신앙인들이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일제에 저항하여 민족 독립을 위하여 순교적 피를 흘리며 지킨 신앙 정신이었다. 3.1정신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추구한 정신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제1종교가 된 한국 기독교는 3.1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3.1운동의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갈망하던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연합기관과 각 교단이 하나 된 모습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남북주민 8천만을 섬기며 통일시대를 열고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다원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인류의 공동선과 자유, 평화, 평등, 사랑, 생명, 봉사, 민족통일,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생공영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 교회는 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국내외적으로 협력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실천함으로써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다가온 4차 산업시대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선진나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끝).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10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

2019 장로수련회 … 장로, 목회자 등 230명 참석

2019 온누리장로수련회에서 장로합창단이 특순하고 있다.

2019 온누리장로수련회가 지난 7~8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온누리교회 장로, 교역자 등 230명이 참석했다.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를 주제로 막 오른 이번 장로수련회는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2019 장로수련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특강1, 조별 QQ(자기소개), 주제토의, 퀴즈대회, 특강2, 조별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황병원 장로(장로수련회 추진위원장)는 "일터와 가정, 사역지에서 성령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장로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병현 장로(분당B공동체)는 "오랜만에 동료 장로님들과 만나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

어드벤처 교사강습회 15일까지

차세대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가 한창이다.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어드벤처 교사강습회는 지난 6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어제(8일) 양재, 15일(토) 수원, 부천, 대전 온누리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어드벤처 교사강습회에서는 '거룩함을 선물하는 어른'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은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대전은 최혁중 목사(대전 차세대 담당)가 강의한다.

어드벤처 교사강습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나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당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회비는 당일등록 2만 원이다.

문의: 02-3215-3521
02-570-7436
계좌: 573-910003-60104(하나은행)
(온누리교회 어드벤처)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 다문화여름캠프 개최

6월 15~16일 경기도 양주 휴리조트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문화선교팀이 주관하는 '2019 다문화여름캠프'가 오는 6월 15일(토)과 16일(주일) 경기도 양주 휴리조트 진행된다.

2019 다문화여름캠프에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양주 진리교회, 포천 하랑예배(포천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소속 이주민들이 참석한다. 15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4부 성가대 워십콰이어의 공연,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16일에는 주일예배, 운동회 등이 진행된다.

예민수 팀장(서빙고 다문화선교팀)은 "다문화공동체 여름캠프를 통해서 소외된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3426-4038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6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5월 12일~6월 1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도곡	조현미	김지영
박은주	노응수		이민경
	변정수	서초B	임윤희
강남B	신지항	고영미	임채영
김주현	황영미	권선희	정기영
손익찬		김수현	
유선미	분당B	손종욱	양재
정영현	김숙경	정희선	강성호
조인숙			이화중
진희경	서초A	서초D	장유진
	김강범	이미정	전영식
경기A	김준수		조성래
김현주	안선애	송파	최정숙
안정환	이지현	강상우	홍정민
전은경	장영자	김국자	
	조은진	김주봉	

농어촌미자립교회에 활력을!

양재 사진전, 서빙고 차세대 초청행사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사역팀이 농어촌마자립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재 농어촌사역팀에서는 오늘(9일)과 다음 주일(16일) 재능기부팀 사진전시회를 연다. 이번 사진전시회에서는 양재 농어촌사역팀 재능기부팀이 농어촌교회 보수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시할 예정이다.

서빙고 농어촌사역팀은 지난 7일(금)부터 오늘(9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지역 11개 교회 차세대 69명을 초청해서 서울탐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에서 초청된 어린이들은 놀이동산, 유적지 등을 다녀왔고, 오늘 온누리교회 차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2019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

6월 25~26일 서빙고 비전홀

2019 회복세미나가 '관계 잇기'를 주제로 6월 25일(화)과 26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관계의 용량', '보호자와 공격자 훈련', '공격하기보다 사랑하기', '고통과 6가지 감정 나누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애착을 점화하기' 등을 주제로 짐 와일더 목사와 크리스 코시가 강의한다.

접수는 회복사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이다. 6월 16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 준다. (www.recovery.onnuri.org)

문의: 02-3215-3355

CGNTV 작은 음악회

CGNTV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CGNTV가 주최한 'CGNTV 작은 음악회'가 지난달 31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막 올랐다. 관객 7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 사랑챔버, 스윗소로우 김영우, 온누리 뮤찬팀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관객 손순일 씨는 "평소에는 접하지 못하는 분들과 교제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TV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게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샤이닝글로리 참가자 모집

샤이닝글로리 80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샤이닝글로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3박 4일동안의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7월 7일(주일)부터 10일(수)까지 경기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진행된다.

7월 3일(수)까지 선착순 접수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8만원.

문의: 02-3215-374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5880	임채환	요셉	1135899	신상민	인천 소망	1135921	윤형주	여호수아	1135941	권선희	서초B
1135881	이강미	SNS	1135903	안정환	경기A	1135922	최송희	여호수아	1135942	박선희	도곡
1135882	김선우	SNS	1135904	서지우	이촌	1135923	정혜선	인천 믿음	1135943	김현자	부천 화평
1135883	김유연	SNS	1135905	송정숙	성북	1135924	김영신	여호수아	1135944	최세진	부천 믿음
1135884	김사라	SNS	1135906	박기정	남양주A	1135925	유제황	여호수아	1135945	정희선	서초B
1135885	손정우	SNS	1135907	이창남	인천 소망	1135926	한이슬	여호수아	1135946	심경열	가정사역
1135886	유시언	SNS	1135908	이상수	강서	1135927	문아경	여호수아	1135947	이내철	송파A
1135887	노지윤	SNS	1135909	손향순	인천 소망	1135928	진주원	여호수아	1135948	최정숙	양재
1135888	김효민	SNS	1135910	김예나	S브릿지	1135929	남현호	허브	1135949	최현숙	양천
1135889	신수빈	SNS	1135911	홍효순	S브릿지	1135930	송호재	허브	1135950	오성순	용산
1135890	임선희	남양주A	1135912	서승원	Gil	1135931	이두형	수원 북누리	1135951	이상건	인천Web
1135891	허장현	관악금천	1135913	김희서	SNS	1135932	박영순	강남A	1135952	함형진	인천Web
1135892	김순옥	부천 희락	1135914	가민연	대전중국어예배	1135934	백은지	마포	1135953	원성혜	인천Web
1135893	정준섭	갈렙	1135915	나자흔	대전중국어예배	1135935	안현순	인천 소망	1135958	노세민	김포
1135894	이영숙	강동 믿음	1135916	김성은	특별한초대	1135936	권태훈	동대문중랑	1135875	하상아	강동 믿음
1135895	박영숙	남양주 행복한하나	1135917	김은지	여호수아	1135937	이은순	관악금천	1135876	전양백	양천
1135896	박서현	갈렙	1135918	김찬미	여호수아	1135938	김수연	서초B	1135877	반하니	동작
1135897	강설경	남양주 행복한하나	1135919	류승완	여호수아	1135939	김강민	분당B	1135878	강경숙	서초B
1135898	김한슬	인천Web	1135920	박파란	여호수아	1135940	박지은	분당B	1135879	조인숙	강남B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11

▌행복드림콘서트 세례 간증

"믿어봐야 손해는 아니다"

/ 곽수일 어르신

나는 올해 76세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전쟁 당시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을 받기 위해 갔었다. 여느 때처럼 교회에서 떡을 받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같은 반 친구가 나에게 "저 녀석! 떡 얻어먹으려고 우리 교회 나왔다"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떡을 내던졌다.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컸던지 세월이 흘러서도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일평생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가족들에게 상처도 주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다.

특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 아들 곽상학 목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됐다. 고생스럽게 아이들을 세 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 잘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됐다.

올해 어버이날 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공연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공연인 줄 알고 잔뜩 기대했다. 알고 보니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행복드림콘서트였다.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교회하면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이 목사이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큰마음 먹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렇게 아들의 초청으로 온누리교회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석했다.

아들 결혼식 때 오고 22년 만에 온누리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많은 분들의 극진한 대접과 좋은 공연,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믿어봐야 손해는 아니다"라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와 닿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세례를 받았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부천 청년부 더함교회 아웃리치 간증

우리들이 해야 할 일

/ 주인서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내가 더함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CGNTV 휴먼다큐 KNOCK 인포리를 부탁해'라는 영상을 통해서였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고 위로를 경험했다. 곧장 더함교회 김준영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다. 그곳에서 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싶어 부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아웃리치를 제안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었다.

우리가 처음 더함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교회 일에 무관심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성도님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새신자들이거나 다른 교회에서 상처 받고 오신 분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전도사님 가정 외에 그 누구도 교회 일에 함께 하지 않으려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다. 더욱 기도로 무장하고 아웃리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32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도배, 깻잎 농사, 비닐하우스 보수 일을 도왔다. 무뚝뚝하셨던 어르신들이 우리를 눈에 띄게 좋아하셨다. 마지막 날 예배에서 연극을 했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박수치시며 참여해주셨다. 김준영 전도사님이 놀라실 정도였다. 또한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다. 전교생 30명인 마을에서 무려 20명이 참가했다.

아웃리치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 동시에 더 잘 해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우리가 김준영 전도사님을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고민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조병홍 목사님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대형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왕복 5시간이 넘는 더함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섬기고 오는 날이면 몸은 많이 힘들지만 팀원 모두에게 늘 깊은 감동과 감사가 남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일 뿐 시골교회인 더함교회는 아직도 더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영적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길 기도한다.

나의 각오

한국위기관리재단(KCMS) 대표로 취임하며

2014년 6월, 36년 동안 근무했던 군과 공직에서 정년퇴직했다. 은퇴 이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여느 은퇴자들처럼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쉼을 가졌다. 정말 여유롭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일에 익숙한 나는 그런 생활이 곧 싫증이 났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강원도 산골에서 3만 평 산채농장을 위탁받아 경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뒀다. 50세 이상 은퇴자만 뽑는다는 네이버협력회사 '에버영코리아(시니어전문IT회사)'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서 일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도 하면서 은퇴 이후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나중에 은퇴하면 선교지에 가거나 혹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로 나를 부르셨다. 2018년 1월 단기선교사 훈련을 받고 3월부터 섬기게 되었다.

TIM을 섬기면서 선교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선교사님들처럼 열심히 선교지와 사역, 선교사님들을 더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아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1년 5개월 동안의 선교사역은 정말 행복했다. 은퇴 이후 공허했던 마음을 성령님이 채워주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필연성도 깨닫게 해주셨다.

남정진 장로(일산공동체·우측)가 지난 5월 27일 한국위기관리재단(KCMS) 대표로 취임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한국위기관리재단(KCMS) 새 대표로 취임하게 됐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의 요청과 온누리교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로 섬길 사람을 보내달라고 온누리교회에 요청했고, 온누리교회가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에 나를 추천한 것이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귀국 혹은 철수하는 것)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위기관리대응 팀장으로 섬기면서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가하고, 타 선교단체를 방문해서 위기조치 사례들을 알아가면서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해 왔다.

위기는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제때 적절한 위기대응 조치를 취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외교부에 등록된 NGO 선교단체다. 위기를 다루는 우리나라 유일한 선교전문단체이다. 이 중요한 사역에 온누리교회가 동역하기로 하고 부족한 나를 파송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

어깨가 무겁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 선교계보다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비서구권 선교사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와 자료를 전수해 주는 국제적인 사역도 꿈꿔본다. 앞으로 한국위기관리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늘 명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으로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더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동역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채워지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이 필요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후원: 국민은행 993101-01-182880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문의: 02-855-2982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12

장로칼럼

청소년, 사회선교 현장에 가다!

박순길 장로
(사회선교
이웃사랑팀)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어른들을 감동시켰다. 지난 4월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40여 명의 성인 자원봉사자와 32명의 파워웨이브 학생, 부모, 교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방문해서 섬길 서빙고, 동빙고, 보광동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42가정을 배정받았다. 이날 용산시립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이 나와서 용산구와 용산시립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위험해소를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독거노인들이 처한 상황, 봉사자 예절 등 '좋은 이웃' 프로젝트 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용산시립노인복지관에서는 방문봉사자 모두를 '좋은 이웃' 개인봉사자로 위촉하며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은 지난 9년여 동안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교회 인근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 취미활동, 부식비 지원을 하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파워웨이브 청소년, 부모, 교사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함께 효도사진, 초상화, 생일잔치, 성경읽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말문을 닫고 사는 어르신들에게 기쁨전도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사랑팀에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노인들과 지역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청소년 사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사실 주일 오후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믿음과 사역이 계승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이다. 이 사역이 온누리교회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파되어 산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5%인 740여만 명이다. 독거노인은 175만 명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들의 여생이 열심히 산 훈장이 아니라 괴로운 짐이 되는 시간이 늘고 있어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개 노인층은 소외감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감을 갖고 있다. 그 원인은 역할상실로 인한 의욕감퇴, 우울증, 배후자의 상실, 단독세대, 사회와 젊은이들로부터의 배제 등이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의료, 취미나 여가활동 지원과 심리안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프로그램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신앙을 통한 공동체 의식,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 유익한 존재라는 자아상을 갖게 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 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사회선교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권사칼럼

서빙고 상담센터의 정체성

김기행 권사
(한강공동체)

온누리교회 서빙고 상담센터(이하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교회상담실'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공개강연회도 열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서빙고 상담센터의 비전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올해 초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게 추를 어디에 둘지 함께 기도했다. 서빙고 상담센터가 교회 상담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임마누엘의 상담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상담사로 시작한 서빙고 상담센터를 20년 동안 한 결 같이 견인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정성스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도 품었다.

또한 서빙고 상담센터는 요일별 상담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상담사들은 내담자와의 유대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상담사 공동체가 하나 됨을 경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담사들이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상담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자 했다.

요일별 상담사 16명이 다 함께 모여 합창팀을 만들었다. 애찬팀은 100인분의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데코팀은 소담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꽃 장식을 맡았다. 컴퓨터, 음향, 각종세팅, 사진촬영, 공연에도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의 상담통계를 다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 시켰다.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긴 덕분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백성인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주셨다. 성경은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3)"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잠시 하나 되는 듯 할 수는 있지만 결단코 한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고, 결국은 분열로 막을 내리는 죄인이라는 존재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때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 연합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화평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구현해 낼 수 있게 된다.

서빙고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붙잡은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감사와 열망이 세상의 행사와 구별시키는 거룩이고, 바로 그분이 서빙고 상담센터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서빙고 상담센터 상담사들은 상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한다.

신앙에세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 꿈꾸며

정호옥 목사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3층 본당에 오르다보면 층간 벽면을 따라 작은 화단이 꾸며져 있다. 얕은 흙, 뿌리내리기 척박한 곳에서도 푸름을 선물하고 있는 작은 식물들이 애잔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게 된다. 그중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작은 창문 세 개가 자리한 곳의 풍성함이다. 잠시 지나가는 작은 빛 하나로 다른 곳보다 풍성하게 자란 식물의 모습에서 빛의 위대함과 감사가 느껴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5:14a), "하나님은 빛이시니"(요일1:5b).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풍성함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큰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가끔 "나는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명제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다. 그때 빛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내가 섬기는 온누리복지재단에는 발달(지적) 장애인 '예손 화가들', 치매·와상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홀몸 어르신들, 가정·학교 밖 소외 청소년들,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 가족들이 있다. 불행할 것 같은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만남을 통해 풍성하고 행복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치매 어르신의 벗이 되어 주려고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욕봉사를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찾은 집사님, 암 투병 중에도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과 함께 버스노선을 익히고, 연필에 침 묻혀 꼭꼭 눌러 쓴 손 편지 한 장에 울고 웃는 권사님이 계신다. 홀몸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는 봉사자님들, 지적장애 '예손화가들'을 자신의 달란트로 보듬고 성장을 돕는 선생님, 외로운 청소년들에게 가족이 되어 생일을 챙겨 주시는 권사님들, 쪽방에서 어둡고 힘든 삶의 무게로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희망공동체 용사들도 계신다. 또 '예손친구들'을 10년 넘게 가족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식탁공동체를 이루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뜨린 동행팀의 섬김도 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멋지게 변화시켰을까? 그들의 변화는 섬기는 분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몸으로 제물 된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한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다.

"고넬료와 그 집안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행 10:2).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10: 4b).

그랬다! 늘 경건하게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준 선물(봉사와 구제)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셨다. 그들의 삶은 바울 사도에 의해 증거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된 영적 예배자들의 삶이다. 그들의 섬김은 사랑을 먹고 나누는 참 예배의 자리요, 영혼의 축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고, 풍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사(Embassador)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몸으로 제물 된 삶을 살아가는 참 예배자들로 인해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생겼다. 그들처럼 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것이다. 내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의로움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므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내 삶을 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빛 된 삶,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한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아낌없이 베푸는 산 제물 된 고넬료와 같은 영적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꾼다.

20190609-1249□-□□_2012528 -902□16□ 19. 6. 7. □□ 7:46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요나의 기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입니다. 언제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가르치십니다.

첫째,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4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셨습니다.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불순종, 반항의 침묵입니다. 도리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언덕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넝쿨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잎이 넓은 식물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박 넝쿨'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잎이 넓은 식물임은 분명합니다.

요나는 그 넝쿨 아래서 햇빛을 피했습니다. 요나는 심히 기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식물 하나를 가지고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바람도 준비하셨습니다. 벌레가 그 잎을 다 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게하셔서 요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8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9절).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요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넝쿨이 없어지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습니다. 속이 좁아 있는 요나의 분노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기는 분노입니다. 때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분노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11~12절).

넝쿨 하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12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신을 시원하게 해 준 넝쿨 하나를 더 좋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에 첫 번째 질문처럼 침묵합니다. 요나의 침묵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침묵으로 반항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언성을 높이며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다시 침묵했습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는 모든 이들을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문제, 옛 사람의 근성, 옛 자아의 영향력을 파헤쳐 가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나의 원수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고집이 있다면 영혼의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죄인조차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요나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의 의로움만 확인하고, 다른 이들의 문제만을 드러낸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무서운 자아의 독을 끊임없이 빼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온전히 죽은 자가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모든 자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고지아 유재원
곽현지 김재희
김미경 정혜정
김태주 김재영
심경열 박명철
안광호 주요성
이경화 나지원

강서
김주현 홍정옥
성명욱 변영애

고양은평
김진아 김선경
민세원 강혜영

관악금천
김경석 김인선
문지은 김민숙
이승경 김영선

김포
박혜정 함기영

노원
김 진 이상명
김태희 김정은
손인식 이용호
안주옥 김준자

동대문중랑
고선경 김용순
김방실 정순애
이은관 성기준

동작
김덕준 이종택
김민정 문경희
김영일 성해두
염문섭 손경욱

마포
강현아 최혜진
김자영 류민아
김정은 김영미
김진환 권명중
박상훈 조승국
이정원 양옥경

북누리
송근례 황인경
안혜경 김계숙

서대문
박예리 김성임

서빙고
김남희 최재영
박명순 홍현순
이일현 김진아

성동광진
김새움 성미화
김아람 홍난이
김종찬 손형배
윤인규 장미례
윤지원 김경숙
윤향운 이경식
이경자 최정심
이지현 이숙자
최오영 정관옥
PAI ABRAHAM YEONWOO
최원일

성북
김호진 고선목
서은미 최진선
최성만 강규진

신용산
이성민 나종삼

양천
이광우 현선웅
정태준 김태은
피정민 김정연

영등포구로
심재일 강윤정
이수미 박정숙
조익희 김순식

용산
김은경 강경열
허윤희 김형숙

이수
김택성 김효구
박승옥 박현옥
박희준 오미연
신동철 서성배
이승섭 이종선
정민숙 최영주

이촌
김정숙 박정란
김정욱 한필규

일산
윤기향 박희숙
장은비 이은화
정진욱 정 인

중종로
곽병영 강성두
권용식 남관우
김성일 조인식
김영남 서정애
박미선 곽현주
성숙자 조명자
양석우 김성현
장한나 전성심

한강
박진효 박철홍
이선주 오정원

공동체없음
박숙영 한영미
박혜민 이용아
엄경숙 이소영
이민정 이지영
정호영 홍해남
주승유 우은애
최명규 박재수

OCC
김민욱 정승호
서영석 정훈재
안준희 김정은
이슬기 최진희
최지영 임화경

OEM
김아림 이현아

S브릿지
김예은 조정희
노은미 이희진
도지혜 김명희
심창재 서동환
이남주 김의남
이선민 김신실

양재

강남A
김용완 유용상
김혜리 오영미
신흥섭 함상석
이은주 신재금
정용문 김정호
최윤정 김지현

강남B
구현숙 이은경
김은경 이윤옥
박성욱 주영창
정종민 진명호
지소정 김현정

강남C
노성현 김창원
이혜영 권연주
정주현 김민숙

강남D
엄기호 홍정표
조효령 정영교

경기A
김순미 양상용
유은희 최은숙
정인아 권혜경
현혜성 정신영
홍석표 이창훈

도곡
고은경 임혜정
곽다은 신일숙
김미영 장현정
김정아 한혜숙
김지영 신일숙
김진규 김진경
김형래 전재홍
김희민 이태순
신난영 길윤형
오영교 허대행
정혜선 임경희
최세희 최현주
한상미 임봉자
형세준 오준환

분당A
강영훈 오영배
김동수 김형석
이길림 김홍숙
황은미 이숙희

분당B
김정아 양은경
윤광희 김기훈
정연우 최광식

서초A
김무훈 최태형
박병희 송혜주
박주현 김사라
정혜진 신미경
조현미 한지숙
차미정 호유진

서초C
김영훈 이병하

서초D
김세빈 김지연
정성천 박흥선
정지현 장혜진
정희록 오재국
현동환 김신일

송파A
권현진 안일심
김금순 안진호
김동규 장원규
이명숙 양경미
이형철 양웅대
조윤정 장후선
하진건 장원규
하초자 천영실

송파B
서명하 신윤옥
이승후 우청석

양재
구향숙 박덕심
김선근 최재원
김순정 장송자
김양숙 이미경
김종훈 조선호
석지선 김려원
이영주 홍윤숙
이정미 조순례
장민준 양석진
장유진 엄미현
장혜화 김옥진
최주철 김진우
황송택 김동수
황지희 김애란

푸른누리
김충회 이상준
송영복 이신준
신아영 이현정
이윤호 이승환
이현탁 신 헌
이효정 이달숙
황현수 이신준

하나
김용화 홍장기
빈정하 이선미
송성식 김홍태
송혜원 류회숙
윤유현 이창운
이경아 김수임
이동호 정광진
이성민 함일성
이진호 조재관
정여정 이현숙
조영화 구정희
최형진 김찬호
홍영배 이어령

요셉
김수연 이현철
김재현 이은철
김태형 허 경
서혜림 최영아
양서진 김순예
장문경 신화자
조은혜 신하영

하늘
김수연 김성애
박소현 손은형
손소희 이형자
임혜진 김성임
조용준 김광훈
한준희 오희정

허브
강정민 유미미
김솔지 엄광미
방은정 박지현
배희준 이미종
서혜영 최혜정
양정은 이현정
유다혜 도재현
이예솔 김선영
이지영 김순옥
정세라 이정민
정유경 권정희
한유진 최은영

J4U
김성엽 추정훈

공동체 없음
윤영빈 홍승우

Bridge33+
곽동기 이의춘
김병조 강기홍
박수경 박혜성
박은영 한민희
이은주 유수경
임보배 김정애
임은영 유경희
진병수 박상범

Point5
김성은 홍성임
김현주 하지혜
노정연 김경선
조장래 백인재

대청

갈렙
장서영 김단비
한선웅 서병원

길
황평화 연미영

여호수아
강소정 이승아
강지연 임화경
강태양 이은숙
고은선 김영선
권중우 김민석
권지현 권유민
김범준 장지수
김보금 최유식
김선아 이은경
김소민 안경실
김소해 최연숙
김지안 우은정
김창환 심효무
김현정 한경옥
박세혁 강기주
박준오 임석건
박하정 엄광미
이지수 황윤주
이채원 최유경
정이레 태지연
정혜선 원정림
조하은 김성신
최고은 김소형

SNS
고예은 박영정
김제완 박상태
김주영 조래철
김희수 김미자
손혜은 소미현
양현주 박진영
오성은 김혜진
오준석 정도영
오지영 임선주
윤서연 김미애
이경림 신정희
이상렬 김수민
이선미 신수정
이우리 김진경
이정아 강현숙
이지현 이경옥
이채진 황윤정
이희연 김충열
장하영 이영숙
정나래 고은빈
정찬환 김선일
조성희 이미숙
최수현 양희정

W
김나홍 신미숙
김소혜 송기현
마종숙 성창섭
임채근 성창섭
정종현 장장용

어린이
안서하 한지연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16일(주일) 2부 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대상자: 4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김홍주 목사반
김윤자

김효구 장로반
김은경

박구병 장로반
김기범
김성주
이규니
이은솔

박철웅 목사반
최경숙

신동식 목사반
서현우
정주희

육동건 장로반
김소현
문현수
백재찬

이준호 목사반
장영선

최성석 목사반
임수민
주민숙

최승구 목사반
감지훈
구병삼
권오선
권재희
김동욱
김영삼
김지수
김한호
김현정
박세찬
백근호
백은나
신은주
윤홍식
이민신
이선의
이선자
이숙향
이숙희
이승철
이정은
이호준
임경영
임주용
장혜원
전찬효
정해영
하소정
한재관
허오욱
허진희
황지수
SONG KENNY KISUN

양재

김승훈 목사반
백애란

김철주 장로반
강미희
고인아
김명옥
김문주
김수현
김영자
김예숙
김은혜
김재영
김정숙
김태은
남정현
배주미
변지선
손여옥
손영은
유진희
이상범
이영희
이윤정
이지예
임기선
정훈영
조영아
조혜윤
최미애
최혜선
황지원

김태용 목사반
신승자

이기진 목사반
강창순
권신정

이진숙 권사반
공국찬
구정아
김기정
김명숙
김일현
김지연
김형균
남궁나래
박상덕
안성연
이경진
이성신
이요한
이현숙
정미연
정쾌남
최병호
한국일
황지영

조대희 장로반
김노을
박민숙
유승석
이영희
최윤희
한영순

1249호 2019060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6. 7. 오후 6:48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네팔 포카라 재능기부 아웃리치팀원 모집
일시: 8월 13일~19일(+1)
장소: 네팔 포카라
비용: 항공비 별도, 개인회비 30만원
분야: 이미용, 한국음식, 탁구, 악기(기타), 한국어, MK교육, 진로상담, 교사강습 등
문의: 이생명 선교사(010-2902-2763)

두란노서원 IT사업부 채용
모집: 콘텐츠팀, 시스템팀 각 1명 (서빙고동 본사)
업무: 콘텐츠팀(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유지보수), 시스템팀(웹 유지관리)
근무: 정규직(수습3개월)
자격: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앱개발 가능자 우대, 웹 개발/퍼블 경험자 우대, 장애인, 보훈대상자 우대

CMN BEE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3일~28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분야: 비의료인, 치과, 약사, 피부과, 산부인과, 간호사, 미용
비용: 130만원
문의: 한경식 팀장(010-9083-419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양재 성찬위원 모집
모집: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 봉사 (한 달에 한 번, 시간 조절 가능)
내용: 성찬 떡, 포도즙 준비 및 세팅 작업
장소: 경찬홀
문의: 윤석일 팀장(010-5477-1308)

두란노서원 직원
모집: 서빙고 저작권팀, 양재 서점 매장 직원, 서빙고 광고 영업 직원
* 공통사항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CMN 토브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4일~29일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밝은미래학교
분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비용: 130만원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6/2, 9, 16, 23, 30: 연세대학교 종합관 (송도동 162-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249호 2019060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6. 7. 오후 6:48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서현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권조나단 길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진아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석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헌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재승 안사무엘 이우람
최대흥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곽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데벤드라 라즈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씨마
서수민 신정빈 싱루아마눕 안희진
이진이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성효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지환
김진성 김진아 김주영 김종균
김충성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노태규
민희준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신광 박승홍 박영규 박은빛
박이호 박현식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백승범 백운진
서영철 쇼배 슈와르 송동주 송선애
송우항 송지은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주영
양진범 여지휘 연공주 오국헌
오영민 오준현 오현석 우승민
윤경선 윤상복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민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신임 이선영
이성광 이수호 이엘렌 이용민
이원준 이은정 이진기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 빈
장새힘 장윤진 장재원 전소리
정성진 정에스더 정연상 정영광
정지은 조준기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추대식 추미유키 최규종
최선재 최영빈 최정현 최종현
최휘준 하성희 허루슬란 현신원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길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안태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곽병찬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신은혜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후명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은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완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도일 김동은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영
이은택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대웅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코바야시 메구 기지마
에미코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 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진용
김좌겸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양숙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5/31(금) 서초A 이형희 성도 부친상 고 이병혁
5/31(금) 서초C 김미은 성도 부친상 고 김동진
6/1(토) 서초A 백승화 성도 부친상 고 백낙안
6/1(토) 도곡 박경숙 성도 부친상 고 박보국
6/3(월) 서빙고 원혜정 성도 자녀상 고 손주현
6/4(화) 양천 최성철 집사 모친상 고 방귀숙
6/4(화) 분당B 박진성 성도 빙모상 고 고화순
6/4(화) 강남C 조선녀 집사 모친상 고 곽상단
6/4(화) 서초D 정철윤 집사 빙모상 고 김계순
6/5(수) 양재 이정보 성도 부친상 고 이홍재
6/5(수) 도곡 신난영 성도 시부상 고 홍금표
6/5(수) 서초B 신지미 집사 모친상 고 손종임
6/6(목) 중종로 이상훈 성도 모친상 고 조여조
6/6(목) 서빙고 김진우 성도 모친상 고 김정희
6/6(목) S브릿지 박준건 성도 모친상 고 김정열
6/7(금) 노원 윤경희 집사 부친상 고 윤경용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전도봉사 등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후원품 모집
내용: 어르신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을 후원 해주세요
후원물품: 색연필, 싸인펜, 색깔매직
문의: 송유라 복지사(02-3407-277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촉탁의 모집
내용: 어르신 건강상담 봉사(월 1~2회 2시간)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2-3474-6080)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신종순, 추용남(세광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아들
신상국(온누리교회)
故)최동학, 김옥숙(동산교회 집사)의 딸
최지현(온누리교회)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손동헌, 故)서정선의 아들 손의중(서현교회)
김성환, 오선민(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의 딸
김윤지(온누리교회)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김종호, 손화자(온누리교회 안수집사,권사)의 아들
김대건(온누리교회)
이창성, 임지희(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의 딸
이효진(온누리교회)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권완길, 곽미희(부산수영로교회 집사)의 아들
권민철(온누리교회)
故)이영철, 김영미(온누리교회)의 딸
이혜원(온누리교회)

1249호 20190609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6. 7. 오후 6:48 페이지 3

CGNTV

붓소핸섭

Hands up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청년 조셉 붓소의 거리 전도 프로젝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YouTube '노크KNOCK' 채널 절찬 상영중

#노래하는 #최준섭 #유튜브전격데뷔 #분위기좋고

"전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다른 나라까지 와서 힘쓰는 청년 조셉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채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 J*

"구독과 좋아요~ 4000만 가야지! 격하게 응원해!!!! 멋지다 그대♡" - 때*

"굿 뉴스를 전할 준섭형제님의 활약이 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줍소~~~~~~" - Da S**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영상 편집도 센스넘쳐요♡" - TT M**

YouTube 에서 "노크KNOCK"를 검색하세요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